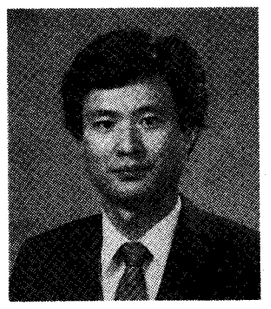
통사론 현대 국어학 연구의 중추

교수기고 … 통사론의 쟁점 연구

민족자존을 위한 연구에서 지적 탐구로 목표 전환
서술어 중심의 문장구성 연구 활발히 진행돼야



김 기 혁
〈문리대 교수·국문과〉

Ⅰ. 현대 국어학에서 통사론의 위치

현대 국어학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부터를 구조주의 시대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생성이론의 시대로 나누는 것이 통설로 되어있다. 이 시기는 서구 언어이론 특히 미국의 언어학 이론에서 기술언어학과 생성언어학의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그 연구 결과가 즉시 국어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어 학에서도 이 두 시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여러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성이 큰 시기이다. 따라서 그 철학과 언어관의 다름을 따라 전기구조 주의시대(기술언어학시대:1950~1960), 후기 구조주의시대(생성 변형시대)로의 구분은 두 시기의 차이에 앞서 공통성을 제시함이다.

문법론에서 통사론과 형태론의 구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통사론은 국어 문법의 체계화 종합화에 의한 규범적 연구에서 각 부분에 대한 연구의 전문화 세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전체적 체계화의 바탕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인 문법현상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 연구 분야로 나누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분리 속에는 언어 연구의 기본 이론인 분석주의가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는 미국 기술언어학에서의 정밀한 기술과 이에 따른 분석과 같은 이론이 밑바탕이 된다. 형태소의 분석과 같은 언어 분석이론이 통사론 연구의 바탕이 됨은 당연한 일이다. 국어는 어미나 조사의 문법형태소들이 주요한 통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형태소에 대한 이해가 통사론 연구에 필수이다. 품사분류에서 있었던 분석주의와 종합주의에 따른 다른 해석은 최근의 통사론 연구에서 문장구조의 분석이나 어미분석에서 재현되고 있다.

통사론 연구에 또 다른 방법론은 구조에 입각한 해석이다. 이는 전통문법에서도 구문구조를 도해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속구조를 인정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고찰한 바가 있으나 깊이와 폭이 있는 논의는 되지 못하였다. 서구의 구조주의와 생성이론의 도입은 국어 연구를 구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전환시켰다 할 수 있다. 특히 구절구조를 중심으로한 계층구조의 인식과 심층구조와 표면구조를 설정하고 이 두 구조를 변형으로 연결하는 구조해석은 변형의 힘 여부에 따라 변화를 했으나 최근의 지배결속이론문법(GB문법)의 D-구조, S-구조 α 이동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구도는 변함이 없다. "지배-결속이론은 종전의 변형-생성문법에서부터 아무런 근본적 변화없이 직접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라는 촘스키의 언급이 이를 말해준다. 이 이론들은 국어 연구에 가장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인식은 랑그와 빠롤, 연합과 통합, 공시와 통시의 구별 등을 바탕으로 한 언어를 체계로 파악하는 구조주의의 전통적 개념과 이어져 있다. 이는 생성문법이 경험주의적 기술언어학에 반대하여 선험적인 언어능력을 언어관의 중심철학으로 하고 있지만, 언어수행과 언어능력을 비롯한 심층, 표면 구조와 변형 등의 기본 틀은 구조적 언어 이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D-구조와 S-구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구조주의에서 탈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국어 통사론은 이런 점에서 언어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언어이론의 수용 속에서 국어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론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법 연구의대상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도 구조적 언어 해석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세분된 대상들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를 전체적으로 구조화 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Ⅱ. 통사론 연구의 쟁점

통사론은 문장을 구성하는 짜임새를 연구하는 부분이다. 문장은 문장성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대한 올바른 규명과 이해 그리고 그 문장성분들이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짜임의 방법 등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성분에 대한 이해가 통사론의 출발이다. 문장성분을 이루는 언어형식인 형태소나, 단어, 어절(말마디), 구, 절 등과 같은 문법범주가 통사론의 관심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통사론은 문장성분이라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성분에 의해 구성되는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것이며 문장성분은 어떤 짜임새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기본문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구절구조 규칙과 같은 문장구조 원리에 대한 검토가 따르게 된다. 이 구성 성분의 구조화는 홑문에서 시작하여 겹문으로 이어지는 문장 짜임새이다.

국어의 연구에서 문법형태소인 조사와 어미는 문장을 구성하는 짜임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보다는 각 형태소의 의미와 특징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형태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형태론부분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문법형태소들의 의미와 통사적 기능은 단순히 해당 형태소나 문장성분에 그치지 않는 국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사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는 통사론 연구의 쟁점을 1. 문장구성성분 2. 문장구성성분의 구조 3. 문법 요소의 형태와 통어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장성분의 재인식 -서술어 중심의 통사론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중심으로 한 필수성분과 관형어, 부사어들의 수의성분에 대한 필수성과 수의성에 대한 한계의 구분이 문장성분에 대한 기본적 논점이다. 이들 성분의 필수성에 따라 특히 부사어와 보어 사이의 경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연구에서 필수성과 수의성에 대한 명석한 구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수적부사어나 수의적 보어의 개념이 대신 등장하고 있다.

서술어가 문장 구성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국어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국어통사론의 연구는 그 중요성의 인식에 비해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영어 혼비(Honby)의 옥스포드 사전의 경우 최초발행이 194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전의 앞 부분에는 25가지의 동사유형(VerbPattern)이 제시되어 있고, 사전에 제시되는 모든 동사는 이 유형에 다라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어사전에서는 동사, 형용사와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동사, '하다'동사, 지정사 등이 집중적 관심을 받았고 사동·피동의 문법현상에 따른 사동사와 피동사가 사동문과 관련하여 조명을 받았다. 또한 시제나 시상의 연구 속에서 동사를 상태성, 동작성, 순간성, 지속성 등의 의미 특질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들과 시간부사와의 관계성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동사의 하위 분류도 시도되었으나, 다른 문장성분과의 통사적인 유기적 관계보다는 의미적 특질에 연구가 한정점이 있기 때문에 국어 문장구조를 유형화할 수 있는, 그리고 국어의 기본문형을 제시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최근에 들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는 서술어 중심의 연구는 국어 통사론 연구가 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성문법을 국어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에서 분석되었던 이행소와 관련되어 연구된 수행동사와, 심리동사, 단언서술어 등이 이들 시기에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는 국어 통사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어의 통사론을 다른 문장성분과의 통합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모리스 그로스(Gross)의 영향을 받은 홍재성(1987)을 들 수 있다. 이동동사, 대칭동사, 동반동사, 상호동사, 중간동사라는 통사적 특징에 따른 동사의 하위분류가 시도되고, 목적어와 관련하여 '행로의 보여', '예정의 보어', '직접목적의 보어'등의 문장성분의 개념이 세밀하게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능격동사, 중간동사, 중립동사 기능동사가 나타나고, 이들 서술어들은 다른 문장성분, 특히 부사어들과의 관계에 따라 대상위치동사, 대상수혜동사, 대상변화동사나, 이탈중심 이동동사, 도달중심 이동동사, 경로중심 이동동사, 방향중심 이동동사로 세분되기도 한다. 이들 서술어가 형성하는 문장을 결과적으로 자동구문, 타동구문, 이동구문, 대칭구문, 상호구문 등으로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게 하여 준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통사구조의 연구는 사전적 연구에 가까운 개별 서술어들의 연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보조동사의 경우, 개별 보조동사에 대해 세세한 의미와 통사적 특징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개인이나 특정 소수인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바가 있어 집단적 연구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전산학의 발달은 국어자료의 처리를 신속히 하여 주고 연구자간의 연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학과 전산학의 연결 속에서의 국어 통사론 연구가 모색될 수 있다.

컴퓨터와 관련된 국어 통사론의 모색은 이런 점에서 시급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의 전산화 작업과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어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국어 통사론 나아가 국어학 연구에서 전산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워드프로세스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문헌 자료의 목록화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어 통사론은 각 어휘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가 특히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상에 나타나는 용례를 자료화하면서, 문장구조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그 총체적인 모습을 정립할 수 있는데, 이는 전산학의 도움 속에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구성성분의 구조-어휘중심적 구조와 문법형태소중심 구조

국어의 통사구조를 나타내는 구절구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국어에 적합한 구절구조규칙을 국어라는 언어 현상을 근거로 하여 문장을 분석하는 가운데 세우기보다는 도입된 생성문법의 구절구조규칙에 국어를 적용하는 시도에 전념한 면이 크다. 즉, 국어 문장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말에 맞는 문장구조, 구절구조를 찾아내고 형성해내는데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성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미의 처리에 대한 자주적 처리방법을 들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어의 어미들은 서술어의 어간과 상대되어 형태론적 구성 서술어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어미에 대한 형태론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미는 단순히 서술어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서법을 결정하거나, 문장의 때나, 높임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에서 문장이라는 전체 명제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미에 대한 인식 방버을 통사·의미론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구절구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X'구조(중심어구조, 핵심구조)가 등장했다. 국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이에 뒤따라 국어를 이구조들에 맞추어보기에 다시 분주해졌다. 그리고 이 X'통사론에 맞춘 국어의 구절구조가 주로 외국에서 학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새로운 학문적 경향에 따르게 되는 것은 지적 호기심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국어에 맞는 이론인가 국어의 특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론인가의 반성이나 논의에 앞서 주어진 틀에 짜맞추는 것, 그리고 그 행위의 근거로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원리를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태도로는 우리 자생적인 언어 이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영어에서 I나 C가 중심어가 되고 S대신에 I"또는 IP를 S'대신에 C" 또는 CP를 세우는 것은 각기 타당한 통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어 구절구조의 연구에서는 영어에서 구조의 연구에서 주목되었던 현상들이 국어에도 똑같이 존재하는가에 관심이 더 기울어졌었다. 국어의 경우 모든 어미를 I로 보기도 하고, 보문소를 따로 세워 C라 보기도 하고, C를 어말어미, I는 선어말어미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들 어미가 어휘부인 서술어를 제치고 중심어가 될 수 있는가의 판단은 X'통사론을 고려할 때 국어의 문장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제이다. 국어에 AGR이나 INFL이 또는 COMP가 주어과 선택제약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INFL에 어말어미가 포함되는 경우는 문장의 서법을 지배하는 것으로 어말어미가 중심어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AGR로서 존체존대의 '시'가 주어와 일치하는 것을 제시한다. 어말어미를 C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결국 국어의 어미를 형태론과 통어론적 해석의 어느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국어의 현상을 통한 타당성 있는 문장의 구조화 보다는 X' 구조에 국어가 들어 맞는가 이것에 맞는 증거들은 무엇인가 하는데 관심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이처럼 X' 통사론이나 분석주의 입장에 따른 국어구조의 해석은 C나 I범주가 국어의 통사구조 설명에 가장 적절한 것인지가 의문인데, 주제의 구조상에서의 제시를 비롯하여, 국어의 어미가 선어말어미는 I로 어말어미는 C로 양분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된다. 관형사형이나 부사형, 명사형어미에는 종결어미에는 없는 시제의 의미, 즉 여기서 I요소가, 같이 들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I와 C의 결합을 세워야 할 것인데, 이러한 규칙화가 의미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3. 문법형태소-형태적, 분석적 해석과 기능적, 종합적 해석

국어에서 문법형태소인 조사와 어미는 형태소라는 점에서 형태론에 소속되지만 문장 전체에 대해 통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사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어미는 국어의 통사적 현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 이 어미에 대한 통사적 특징에 앞서 제기되는 논점은 이 어미를 형태소 분석의 한계에서 어디까지 분석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나는 어미는 극한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극한 분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분석적 입장에서는 몇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구성을 하나의 형태인 것처럼 기술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아서/어서, -고서, 에서, 에게서, 께서"의 '서'를 분리하지 않는 점이나, '-는데, ㄴ/는다', '-는구나'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한다. 이들 전체를 어미로 보는 해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분석주의적 해석이다. 더 나아가서 관형형어미 '-은', '-을'에 대해서도, 중세국어나 고대국어의 해석을 원용하여, 이들을 동명사어미로 보며 동명사적 특징을 존중한다. 어미라는 단위는 개념이 모호한 것이고, 어미는 하나의 형태소이거나 둘 이상의 형태소가 융합된 언어형식이라는 어미라는 술어를 청산하고 형태소 단위의 문법체계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모두 철저한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주의적 견해라 할 수 있다.

최현배 『우리말본』에서의 어미는 형태소 중심의 극한 분석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분석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다. 단일한 어미로 다루어진 것 가운데 베품꼴의 '-(으)ㅁ세, -(으)ㄹ소냐, (으)ㄹ손가, -세다, …'등을 비롯하여, 이음꼴의 '-(으)ㄹ진대, -거든, -니까, -니까, 면서, -는데, -든지, -ㄹ뿐더러, -ㄹ수록, …' 등은 더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 이 어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을 분석한 형태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석이 의미 있는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말본』에서는 이들을 분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합주의적이며, 의미와 기능을 중시한 언어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극한적인 분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더 분석 될 수 있다는 비판 아래 더 분석을 시도하고 분석해 낸 형태소가 다른 어미에서도 분석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종결법 어미, '-니다', '-니까'에서 '-니'를 분석하는 것이나, 연결어미 '-느라고, -는데, -는바, -는지, …' 등에서 '-느-'를 분석하는 것은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종결어미 중에 '는다, 는구려, 는군, 는구나, 는가, 는데, 는지', 를 비롯하여, '는걸, 을걸, 을까, 을래, 으라고'를 비롯한 많은 어미들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어미들은 역사적인 증거를 내세우거나, 공시적인 면에서라도 같은 형태의 존재를 근거로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는' 도는 '느'의 분석이나, '는걸과 을걸'의 '는 것을과 을 것을'로의 분석은 가능한 시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되기 이전과 의미가 다르다면 이 분석이 의미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어미에 대한 형태소의 극한적인 분석이 곧 어미의 의미와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짐으로 어미가 가지고 있는 종결, 연결, 또는 전성의 의미와 기능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분석은 의의를 잃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분석의 근거가 통시적 현상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즉 형태소의 극한 분석에 의한 단어나 형태소의 구조원리를 밝혀보려는 작업도 중요한 것이지만, 분석되면 의미나 기능이 사라질 언어표현들에 대한 분석에는 의미와 통사 또는 기능적관점에서의 제한이 필요하다. '밤낮'이 두 명사가 합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이 언어표현이 부사로서 구실을 한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어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결어미 '는데'가 '는'과 '데'로 분석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진 즉시 연결어미 '는데'가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로서의 의미와 기능은 사라져 버린다.

완결이나 과거의 '았'이나, 미정이나 미래의 '겠'은 '아 이시/잇'과 '게 ㅎ엿'에서 연유한 것인데 형태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나 기능도 변해 화석화하였다. 이들의 화석화의 과정을 공시적인 측면에서의 축약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 보조동사도 일부에서 자립성에 관계없이 보문을 이끄는 상위동사로 보는 해석이 있고, 조정된 의미로 변환(Transderivational conversational postulate)으로 보조동사의 본동사와 다른 의미를 설명하려고도 하나 보조동사들이 심층에는 주동사로 있다가 다른 동사와 연결되면서 보조동사로 의미와 기능을 바꾼다는 해석은 설명력이 없다. 주동사와는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갖은 보조동사라는 범주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보조동사구성이 주동사의 연결인 통어적 구성을 환원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의미와 기능에서 고정된 어미와 맥을 같이 한다.

Ⅲ. 마무리

국어통사론은 민족자존을 위한 국어연구에서 지적 탐구로 연구의 목표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꽃피우게 된 국어학 분야이다. 규범화, 종합화된 전통문법 대해 각 대상에 대한 분리적이며 분석적인 연구가 시도되었고 때마침 발달한 통사론 중심의 생성문법의 도입이 통사론을 현대 국어학의 중심분야로 만들었다.

그러나 통사론 연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구성 성분과 문장 성분의 통합에 대한 인식에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기술적인 연구가 부족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장구조의 해석 원리에서도 국어를 중심으로 한 구조 해석의 원리의 창출 보다는 서구식 이론구조에 짜맞추어 보기에 급했던 점도 지적된다. 또한 문법형태에 대한 인식에서도 지나친 형태적, 분석적 관점과 기능적, 종합적 관점이 혼재했음도 지적다.

국어 통사론의 연구는 문장성분 가운데 서술어를 중심어로 하여 다른 문장성분과의 유기성을 경험적, 기술적으로 면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통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문장구조의 원리도 이 바탕 위에서 국어의 문법 현상을 반영하는 해석 방법이 나름대로 제시되어야 한다. 문법형태소의 분석은 가능하면 극한으로 분석해야 하겠지만, 형태적 극한분석과 기능중심의 종합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학

강의실 노트

「투표」「응답결과」통한 알찬 강의돼
실제 사례 다룸으로써,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 촌탁 할 수 있어

이 근 수
〈정경대 교수·회계학과〉

회계학 강의시간에 나는 때때로 실제의 사회현상을 사례(case)로 만들어 학생들과 토론을 벌이곤 한다. 지난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다루어 보았다.

"어느 아파트단지는 31평과 19평의 두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난방비나 일반관리비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파트관리비는 지난 수년동안 평수에 비례하여 각 세대에 배분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 31평형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전기료와 경비원급료는 어느 평형에서나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평수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세대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평형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의 방법을 변경하여 세대별로 동일한 금액을 배부하게 될때 계산상으로는 31평형에서는 월간 2천5백원을 덜 내게 되고 19평형에서는 그만치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적하면서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는가를 질문했고 그들의 대답을 다음 세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방법은 월간 2천5백원이라는 금액은 아파트주민들의 생활수준으로 볼때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금액이다.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중요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이만한 금액으로 물의가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행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방법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공정성 혹은 적정성이란 차원에서 볼때 각 세대가 혜택받고 있는 정확한 수익만치를 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처리방법이다. 즉 수익자부담이란 원칙에 따라 각 동별로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전기료를 계산하고 각 동의 경비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해당 동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방법은 이것이 이론적으로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소득재분배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평수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볼때 더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소 비합리적인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방법을 변경하지 말고 작은 평수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세가지 해결책을 놓고 학생들에게 투표를 시켜보았다. 회계학과 2학년과 경영학과 4학년생 87명으로 구성된 투표인단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방법 : 5명
둘째방법 : 28명
셋째방법 : 54명

나는 시간을 마치면서 이 사례에 대한 나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사실들이 이제 곳곳에서 문제화되고 있다. 학교건 직장이건 동네에서건 누구나 다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일어서고 또 한편에서는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사례는 어느 일개 아파트단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아마도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해결책은 당연히 둘째 방법에서 찾아졌을 것이다.

이것은 세가지 방법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공평한 해결책이 이 방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이상의 다수는 세번째 방법에 찬성했다. 이는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가지고 나는 현실의 노사분규나 학내사태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을 촌탁해 볼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근로자들이나 점거농성자들의 행위가 과격하고 그들의 요구에 지나친 점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이 토론에 진지하게 참여해주었고 나의 논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계이론에 관한 나의 어느 강의보다도 이 시간이 더욱 유용한 것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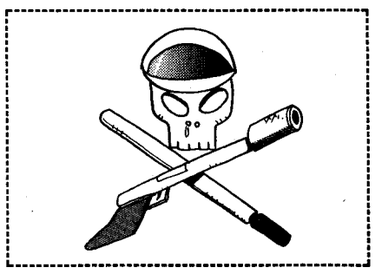
旅時錄 청년의 죽음과 망각

지난 25일 명지대에서는 1년전 전경들의 쇠파이프에 숨진 강경대 열사의 추모식이 열렸다.

작년 4월25일 강경대 열사는 학내 민주화 요구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자신의 학교 총학생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던 시위중 이의 진압에 나섰던 소위 백골단의 쇠파이프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숨져갔다.

이를 전해들은 학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그들의 시위는 연일 계속 되었다.

이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비단 명지대생들 만은 아니었다. 젊은나이에 아깝게 숨진 한 젊은이, 또한 우리의 친구, 후배를 빼앗아간 정권에 대해 전국 대학생의 규탄 시위가 그치지 않았으며 자식을 둔 아저씨 아주머니들 역시 어색하게 그들의 주먹을 치켜들기도 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 과정에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므며 이 과정에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도 있었다. 이를두고 정권에서는 분신 배후설이니 뭐니 해서 본질을 왜곡시키려 안간힘을 썼으며 이땅의 관제 언론 역시 이를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규탄시위는 그 기운이 사그러들줄을 몰랐으며 그 결과 노재봉 내각은 물러나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으며 6월3일 외대에서 노재봉의 뒤를이은 정원식 총리가 계란과 밀



가루를 맞을때까지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으며 분신자의 수도 늘어갔다.

그로부터 1년.

강경대 열사가 숨진지 꼭 1주기 되던날의 신문에는 '시위중 머리에 돌맞는 전경 투신자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또 한명의 젊은이가 시위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물론 강경대 열사는 시위를 하는 측이었고 이번에 숨진 전경은 시위를 막는 측으로 어찌보면 이 두사람의 죽음은 서로 상반된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시봉군 이 전경의 죽음앞에 또 한번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람의 죽음이유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강경대 열사나 이번에 숨진 전경군이나 모두 젊은 나이에 시위현장에서 화를 당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어째서 이땅의 젊은이들이 한쪽은 화염병과 돌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방패와 최루탄을 들고 만나야만 하는가 말이다.

세시봉 문득 이런말이 떠오른다.

'한국사람은 잊기를 잘해 좋은일은 1개월, 나쁜일은 2개월, 길어야 3개월 간다'

이말대로 어쩌면 우리는 강경대 열사를 니즈어가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전투경찰의 죽음을 통해 강경대 열사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왜 이땅의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돌과 화염병과 방패와 최루탄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때이다.